

발행처 : 한국건강심리학회

발행일 : 2013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 민 규

인쇄일 : 2013년 12월 30일

주 소 :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경상대학교

제작처 : 나노미디어(전화: 02-703-7507)

사회과학대학 임상/건강 심리 연구실 (151동 423호)

전 화 : 055-762-2080 팩스 : 055-772-1219

홈페이지 : <http://www.healthpsy.or.kr>

편집장 e-mail 주소 : rhoma777@hanmail.net

편집위원장 : 서경현(삼육대학교)

편집위원 : 강성군(강원랜드) 고영건(고려대학교) 권선중(침례신학대학교)

김용희(광주대학교) 유제민(강남대학교) 장문선(경북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한국심리학회의 기관지로서 연 4회 간행되며, 건강심리학 분야의 연구논문,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하며, 건강심리학회의 공식적 학술 모임의 발표 내용과 건강심리학 분야의 국내 석·박사학위 논문 목록을 게재할 수 있다.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은 일정한 구독료를 받고 배부하며, 구독에 관해서는 한국건강심리학회로 문의하기 바란다.

Vol. 18, No. 4.

Decem. 2013.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published by

b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journal is issued quarterly per year and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rticles and data. The Journal also publishes reports of the proceedings of academic meetings under the auspices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ews on the profession of Health Psychology, and a list of M. A. theses and Ph.D. dissertation in this area. Inquiries concerning the guidelines of the subscription for the Journal and the submission of manuscripts should be sent to: Editor, Kyung-Hyun Suh,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ahmyook University, 815 Hwarangro, Nowon-gu, Seoul, Korea(E-mail : rhoma77@paran.com)

Editor : Kyung-Hyun Suh(Sahmyook University)

Associate Editor : Sung-Gun Kang(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Young-Gun Go(Korea University),

Sun-Jung Kwon(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Yong-Hee Kim(Gwangju University),

Jhe-Min You(Kangnam University), Mun-Sun Chang(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n Health Psychological Associ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jwa-dong,

Jinju City, Gyeongsangnam-do 660-701

KOREA

이 학술지는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한국건강심리학회 임원진

회 장 이 민 규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수석부회장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국내협력부회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국제협력부회장 김미리혜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총무이사 최 성 진 (부산메리놀병원)
교육이사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홍보이사 이 철 호 (법무부 포항교도소)
학술이사 박 지 선 (부산가톨릭대학교)
재무이사 장 문 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윤리위원장 박 경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편집위원장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수련위원장 박 준 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선임이사 고 영 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권 선 중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 완 석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청소년학과)
안귀여루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제 민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이 형 초 (인터넷꿈희망터센터)
정 경 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최 미 례 (육군사관학교 리더십센터)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감 사 김 정 호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고 문 손 정 락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사무국장 서 은 수 (경상대학교병원)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 18 권 제 4 호

[개관논문]

음악치료와 미술치료의 효과 개관 Chad Ebesutani · 김 미 리 혜 / 589

[경험논문]

수용전념치료가 정서조절곤란이 있는 청소년의 정서인식 명확성,
회피적 정서조절 및 학업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허 예 슬 · 손 정 락 / 603

마음챙김과 수용 중심 프로그램이 몰두형 애착 대학생의
애착불안과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 정 민 · 손 정 락 / 627

명상기반 개입법에서 정적명상과 동적명상의 차별적 효과 김 완 석 / 643

긍정 심리치료가 우울경향이 있는 청소년의 행복감, 낙관성, 무망감 및
우울에 미치는 효과 유 은 영 · 손 정 락 / 669

직접적 · 간접적 시각적 노출이 유아기 건강한 채소 섭취량에 미치는 효과
..... 주 정 현 · 정 경 미 / 687

한국형 성인용 게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최 훈 석 · 용 정 순 · 김 교 현 / 709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박 지 선 / 727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 심 미 영 · 엄 진 섭 · 이 선 희 · 김 교 현 / 747

남성 수형자와 일반인의 회복탄력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 한 수 연 · 정 구 철 / 763

수면과 정서조절은 스트레스와 걱정이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가?
..... 심 태 경 · 이 민 규 / 783

대학생의 외향성과 자의식이 향유신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검증 윤 진 아 · 송 원 영 / 80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변인으로 김 정 희 · 안 귀 여 루 / 82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 경 현 · 신 현 진 · 양 승 애 / 837

애착과 자기초점적 주의가 감사와 빗짐에 미치는 영향 김 미 현 · 현 명 호 / 853

[Brief Report]

아동 및 청소년 암환자와 일반 아동 및 청소년의 혐오민감도와
통증-공포 연합강도 간 상관 비교
..... 민 해 원 · 고 영 건 · 유 은 승 · 박 병 규 · 박 현 진 · 김 중 혼 / 869

자아존중감과 마음챙김의 관계 박 상 규 / 881

섭식행동에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 이 민 규 / 891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의 타당화 연구

심미영 엄진섭 이선희 김교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Kashdan, Rose와 Fincham(2004)의 호기심과 탐구 척도(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CEI)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434명의 남녀 대학생(연령: 17-28세)을 대상으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원 척도와 유사하게 탐구(‘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추구’)과 몰두(‘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완전한 몰입’)의 2요인이 나타났으며, 각각 적절한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요인모형이나 독립된 2요인모형보다 상관된 2요인 모형이 더 적합했으며, 전체 척도 점수와 하위 요인 점수는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보였다.

주요어: 호기심, 탐구, 몰두

최근 Kashdan, Rose와 Fincham(2004)은 행복을 증진하는 요소로 호기심을 제안했고, 호기심은 개인 웰빙의 다양한 측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였다(Park & Peterson, 2006;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호기심은 인간의 긍정적 성품에 대한 VIA(Values-in-Action) 분류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24개의 강점 중 하나이며(Peterson & Seligman, 2004; Reiss, 2000), 미국과 스위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Peterson, Ruch, Beermann,

Park 그리고 Seligman(2007)의 연구에서도 행복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연구들에서 호기심은 인지발달(Sternberg, 1994; Tamdogon, 2006), 학교 학습(Day, 1982), 친밀감 발달(Kashdan & Roberts, 2004), 개인적 성장(Kashdan et al., 2004), 삶의 만족, 삶의 의미, 그리고 긍정 정서 경험(Kashdan & Steger, 2007)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기심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이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교현,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220(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Tel: 042-821-6361, E-mail: kyoheonk@cnu.ac.kr

(Kashdan et al., 2004; Litman & Jimerson, 2004; Loewenstein, 1994; Renner, 2006), 인간 행동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요소로 알려져 왔다(Berlyne, 1960, 1971; Izard, 1977). 그러나 호기심 개념의 구체적 정의나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에 따라 얼마간 서로 다르다. 일부 연구자들은 내적 동기를 호기심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고(Beswick, 1971; Deci & Ryan, 1985), 호기심에 감각추구의 개념을 포함시키기도 한다(Ainley, 1987; Collins, Litman, & Spielberger, 2004; Kashdan et al., 2004; Zuckerman, 1994). 또한 흥미,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호기심과 서로 섞어 사용하기도 한다. Peterson과 Seligman (2004)은 호기심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으나, Digman (1990)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호기심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보았다. 권석만(2011)은 흥미는 호기심과 유사하게(Kashdan & Silvia, 2009; Silvia & Kashdan, 2009),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호기심보다 좀 더 좁은 의미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개념 정의에 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호기심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고, 호기심의 개인차를 평가할 수 있는 서로 차이를 보이는 여러 측정도구들을 개발하고 사용해 왔다. Berlyne(1954)은 호기심을 인식적 호기심(epistemic curiosity)과 지각적 호기심(perceptual curiosity)으로 나누었다. 인식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Litman과 Spielberger(2003)의 척도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척도는 일반적 인식적

호기심(diversive epistemic curiosity)과 구체적 인식적 호기심(specific epistemic curiosity)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적 호기심은 소리, 냄새와 같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흥미를 뜻하며, Collins 등(2004)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했다. 이 척도 또한 일반적 지각적 호기심(diversive perceptual curiosity)과 구체적 지각적 호기심(specific perceptual curiosity)으로 하위 구성된다.

한편 Litman과 Jimerson(2004)은 인식적 호기심을 흥미형(Interest type)과 박탈형(Deprivation type)으로 구분한다. 흥미형 인식적 호기심은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기회를 인식했을 때 고도로 활성화되는 반면, 박탈형은 기존 지식에 통합되거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사용될 특정 정보가 부족할 때 가장 크게 자극된다(Litman, Hutchins, & Russon, 2005). 경험 연구결과, 흥미형은 내적 동기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박탈형은 내적 및 외적 동기 둘 다와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itman, Crowson, & Kolinski, 2010). 아울러 Litman과 Silvia(2006)는 박탈형 호기심과 구체적 호기심 및 일반적 호기심 측정치들 사이에 정적 상호 상관관계가 높음을 발견했다.

Renner(2006)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사회적 호기심 척도를 개발했다. 사회적 호기심은 일반적인 사회적 호기심(general social curiosity)과 은밀한 사회적 호기심(covert social curiosity)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사회적 호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습관, 느낌, 사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려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심을 말한다. 은밀한 사회적 호기심은 남의 이야기를 엿듣거나 다른

사람들을 몰래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은밀한 탐색적 행동을 통해 대인간 정보를 획득하려는 관심을 뜻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까지 개발된 척도들은 호기심을 일으키는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 Kashdan 등(2004)은 호기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호기심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존 호기심 척도들이 호기심이라는 특성 자체가 아니라 호기심의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춘 점과 흥분이나 생기와 같은 호기심에 고유하지 않은 상태를 척도 문항 내용에 담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호기심과 탐구 척도(The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CEI)’를 개발하였다.

Kashdan 등(2004)은 호기심을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추구 및 자기조절과 관련된 긍정 정서-동기 체계”로 정의하고, 호기심의 ‘개인 성장 촉진 모형(personal growth facilitation model)’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탐구(새로움과 도전의 추구)와 몰두(진행 중인 활동에 깊이 몰입)라는 두 가지 하위 성분으로 구성되는 7문항짜리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양호한 심리 측정적 특성과 구성 타당도를 보여주었다(Kashdan et al., 2004). 이 척도는 미국 외의 몇몇 나라에서 해당국 언어로 번안되어 호기심에 관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Mussel, 2010; Byman, 2005; Lindgren, Mullins, Neighbors, & Blayne, 2010; Leonard & Harvey, 2007).

한국에서도 최근 호기심에 대한 연구 관심이 활발해지고 있으나(성영신 등 2009; 이현진, 2009; 최영윤, 2009), 주로 특정 대상의 호기심(예, 인식적 호기심, 지각적 호기심)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호기심의 일반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개발이나 연구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이나 인식, 타인 등의 특정한 대상 영역에 한정된 호기심보다는 호기심의 특성 자체를 측정하려는 Kashdan 등(2004)의 ‘호기심과 탐구 척도’를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려 하였다.

호기심의 특성 자체가 갖는 범문화적 일반성을 고려하면,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¹⁾의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는 원 척도와 유사한 정도로 만족할만한 내적 합치도와 시간적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척도의 개별 문항들은 탐구와 몰두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고, 두 하위요인은 서로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5요인 성격 특성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인차 변수들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K-CEI 및 그 하위 요인과 수렴 변별 타당도 변수 사이의 예측되는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첫째, K-CEI 전체 점수로 측정되는 전체 호기심은 성격 5요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5요인 모형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1) 원 척도의 명칭은 ‘호기심과 탐구 척도(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CEI)’였으나 한국어판에서는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로 명명했다. 명칭을 바꾼 주된 이유는 호기심이 ‘탐구’와 ‘몰두’라는 하위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탐구’는 호기심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perience) 척도는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발적 추구와 낯선 것에 대한 수용과 탐구를 측정하며, 점수가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흥미가 다양하며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밝혀진다(McCrae & Costa, 1997). 실제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호기심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하위요인별로는 새로움과 도전을 추구하려는 경향성인 탐구 척도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현재 참여하는 활동에 대해 깊이 몰입하는 경향성에 해당하는 몰두척도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외향성(extraversion)’은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다(McCrae & Costa, 1997). 이로 미루어 볼 때, K-CEI로 측정되는 전체 호기심 척도 점수는 ‘외향성’과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Renner(200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호기심 척도와 ‘외향성’ 간에는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반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몰두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목표를 향한 의지적인 노력과 계획세우기 그리고 높은 인내 성향과 관련되며, 성취하려는 의지와 높은 책임감 등을 측정한다(McCrae & Costa, 1997). Kashdan 등(2004)이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추구 및 자기조절과 관련된 긍정 정서-동기 체계”로서의 호기심을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실성’은 K-CEI의 전체 호기심 및 호기심의 두 하위요인인 탐구와 몰두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신경증 성향(neuroticism)’은 불안, 두려움, 화, 슬픔, 혹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신경증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불안정하며 우울한 경향이 높다(McCrae & Costa, 1997). 높은 신경증은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탐구와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몰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상되며, 따라서 호기심 전체 척도나 탐구 및 몰두라는 하위 요인들과 중간 정도의 부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우호성(agreeableness)’은 우호적인 대인 관계의 유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대인 관계에서의 부정적 감정의 억제와 정서적인 지지와 관련된다(McCrae & Costa, 1997). 그런데 CEI가 대인 호기심이 아닌 호기심의 일반적인 특성 자체를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K-CEI의 전체 및 하위요인 점수와 ‘우호성’ 점수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긍정 정서성(positive affectivity: PA)’은 열광, 생기, 민활, 만족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일반적 성향을 의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 정서성(negative affectivity: NA)’은 분노, 경멸, 죄의식, 공포, 불안과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혐오적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 일반적 성향을 뜻한다. 높은 ‘긍정 정서성’은 높은 에너지, 주의분산이 없는 집중, 즐거운 일 등의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낮은 ‘긍정 정서성’은 슬픔 및 무기력의 특징과 관련된다. 따라서, K-CEI의 전체 호기심과 호기심의 두 하위요인은 ‘긍정 정서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혐오적 정서 경험 경향성에 해당하는

‘부정 정서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뇌 기능 특성의 안정된 개인차를 반영하는 ‘행동활성화체계’와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도 호기심과 의미 있게 관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적 유인 자극에 대해 접근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의 높은 민감성은 외향성이나 자극 추구 성향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Carver & White, 1994). 그래서 정적인 목표 또는 유인가로 향하도록 안내하고 접근 행동을 활성화시키는 ‘BAS’ 민감성은 호기심 전체 척도 및 탐구 척도와는 강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몰두 척도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

면 부적 유인가나 무 보상에 반응하는 ‘행동억제 체계(behavioral inhibition system; BIS)’의 민감성은 호기심 전체 척도나 하위 요인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개인의 기질적 욕구 수준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일부 연구자들(Ainley, 1987; Collins, Litman, & Spielberger, 2004; Kashdan et al., 2004; Zuckerman, 1994)은 호기심에 감각추구의 개념을 포함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감각추구 기질은 호기심 전체 척도 및 탐구 요인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몰두 요인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표 1. K-CEI와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예측

관련변인	K-CEI 전체 척도	탐구	몰두
<u>NEO-PI-R</u>			
경험에 대한 개방성(O)	++	++	
외향성(E)	+	+	
성실성(C)	+	+	+
신경증 성향(N)	-	-	-
우호성(A)			
<u>PANAS</u>			
긍정 정서성	++	++	++
부정 정서성			
<u>BAS/BIS</u>			
BAS	++	++	+
BIS			
감각 추구	+	+	
불안	-	-	-
삶의 만족	+	+	+

주) +: 정적 상관, -: 부적 상관(++와 --는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보다 강한 정적, 부적 상관이 기대됨을 의미하며, 빈 칸은 상호관련성이 기대되지 않음을 뜻함.)

위에서 살펴 본 성격 특성이나 기질 요인들이 호기심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이거나 선행하는 안정적 요인에 가깝다면, 불안과 삶의 만족은 호기심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거나 성장 촉진적 호기심의 발현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해당하는 변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척도와 탐구와 몰두의 하위 요인은 불안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인 상관을, 삶의 만족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방 법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두 가지 표본으로 구분된다. 표본 1(N=236)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표본 2(N=198)는 확인적 요인분석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추정에 사용되었다. 표본 1과 표본 2에 대한 참여자들의 성별 및 연령 특성은 표 2에 제시했다. ‘1개월 검사-재검사’는 ‘표본2’의 198명의 참여자 중에서 50명을 선발해서 두 번의 시점에서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수강 과목의 부가 점수를 받았다.

연구 절차

자료수집

‘표본 1’과 ‘표본 2’에 포함된 참여자들은 각기 다른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표본 1’의 질문지는 K-CEI와 긍정·부정 정서성, 삶의 만족,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억제체계, 상태특성불안, 감각추구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표본 2’의 질문지는 K-CEI와 5요인 성격검사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수업 시간에 담당교수가 일괄적으로 실시하였고, 응답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재검사 표본’의 참여자들은 2차 검사에서는 K-CEI에만 응답하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 Kashdan 등 (2004)이 만든 호기심과 탐구 척도를 주저자인 연구자와 교육 심리학 박사 1명이 독립적으로 번안한 후 번안자 간 합의를 통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번역 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에 능통한 심리학 교수(임상심리전문가)가 이를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건강심리학 전공 교수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한국판 호기심 척도의 문항을 확정했다. K-CEI는 전체 7문항의 7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및 연령분포

		대학생		재검사 표본 (n=50)
		표본 1 (n=236)	표본 2 (n=198)	
성별	남성(%)	95(40.3)	88(44.4)	21(42.0)
	여성(%)	141(59.7)	110(55.6)	29(58.0)
연령	M(SD)	20.94(2.29)	20.93(2.13)	20.18(2.34)
	범위	17~28	18~28	18~27

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검사로, 7점에서 49점 사이의 점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요인 성격 척도. Costa와 McCrae(1992)의 개정판 5요인 성격검사를 노동부(2000)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NEO-PI-R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5요인 성격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 .89, 외향성 .94, 성실성 .94, 신경증 성향 .94, 우호성 .83이었다.

긍정·부정 정서성 척도.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개발한 긍정·부정 정서성 척도(PANAS)를 이현희, 김은정, 및 이민규(2003)가 타당화한 것으로 긍정 정서성과 부정 정서성 각 10문항씩 구성되어 있고 5점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긍정 정서성 .85, 부정 정서성 .87이었다.

BAS/BIS척도. Carver와 White(1994)가 개발한 BAS/BIS척도를 김교현과 김원식(2001)이 한국말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BAS/BIS 척도는 모두 20문항으로 BIS 7문항, BAS 13문항(보상추구 5문항, BAS추동 4문항, 그리고 BAS개미추구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BIS .78, BAS .83 이었다.

감각추구척도. Zuckerman, Eysenck와 Eysenck(1978)의 감각추구척도 5판(SSS-V)을 박윤창, 이미경, 및 윤진(1995)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했다. 감각추구척도는 모두 18문항으로, 경험추구 5문항, 스티플과 모험추구 5문항, 탈억제 성

향 3문항, 그리고 권태감에 대한 취약성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경험추구 .53, 스티플과 모험추구 .89, 탈억제 성향 .84, 권태감에 대한 취약성 .70이었다.

Spielberger 상태-특성불안검사. 전체 40문항의 4점 척도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평가하기 위해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김정택(1978)이 번안한 한국판 특성불안 척도의 2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2였다.

삶의 만족 척도.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 및 Griffin(1985)이 개발하였고, 한국에서는 박정현과 서은국(2005)이 척도를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3이었다.

자료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t-검증, 위계적 회귀분석은 모두 SPSS 15.0v를 이용하여 실시했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7.0v를 이용했다.

결 과

기술 통계치

표본 1의 한국판 호기심 척도의 평균점수는 4.81(표준편차=0.83; 이하 같음)이고 표본 2는 4.84(0.74)로 중간 값('보통이다')에 해당하는 점수

인 4점 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다. 척도의 하위요인인 탐구와 몰두의 평균은 표본 1에서는 탐구가 4.72(0.92) 몰두가 4.93(1.02)이었으며, 표본 2에서는 탐구가 4.82(0.83), 몰두는 4.86(0.96)이었다.

K-CEI로 측정한 전체 호기심과 호기심의 하위요인인 탐구와 몰두라는 특성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전체 척도와 하위 척도 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본 1: 전체 척도, $t(234)=1.06$, 탐구, $t(234)=1.08$; 몰두 $t(234)=.70$; 표본 2: 전체 척도, $t(196)=1.05$; 탐구, $t(196)=.65$; 몰두, $t(196)=1.13$; all $ps>.05$). 연령의 경우에도 전체 척도와 하위 특성 점수와 연령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표본 1: 전체 척도, $r=-.01$; 탐구, $r=.03$; 몰두, $r=-.05$; 표본 2: 전체 척도, $r=.09$; 탐구, $r=.08$; 몰두, $r=.07$; all $ps>.05$).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표본 1의 자료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하여 사각회전(direct oblimin rotation)을 하였다. 추출 요인 수의 결정은 scree plot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59.7%를 설명하였다. 표 3에 요인구조와 요인 부하량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인 1은 Kashdan 등(2004)의 연구에서 탐구에 해당하는 문항들이고, 요인 2는 몰두를 나타내는 문항들과 일치하고 있다. 두 하위요인 간 상관은 .60이었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K-CEI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0.77이었고 탐구는 0.66, 몰두는 0.61이었다. 표본 2의 연구

표 3. K-CEI의 문항별 평균(표준편차)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표본 1)

	문항	M(SD)	요인부하량 (Pattern Matrix)		요인부하량 (Structure Matrix)	
			탐구	몰두	탐구	몰두
1	나는 새로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4.83(1.17)	.63	.13	.71	.51
2	나는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몰두한다.	4.94(1.14)	.11	.75	.56	.82
3	나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예: 정보, 사람, 자원).	4.78(1.21)	.59	.16	.69	.52
4	나는 새로운 상황이나 사물을 깊이 탐구하지 않는다.*	4.69(1.25)	.53	-.04	.50	.28
5	나는 어떤 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5.16(1.50)	-.03	.49	.26	.47
6	내 친구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매우 집중하는 사람' 이라고 나를 평한다.	4.69(1.28)	.01	.67	.41	.68
7	어디를 가든지, 나는 새로운 것이나 경험을 찾는다.	4.60(1.31)	.70	-.07	.67	.36

* 1~7점의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했으며, 4번 문항(*)은 역전시켜 채점하고 총점을 구했음. N=236.

참여자들 중 50명에게 한 달 간격으로 K-CEI를 반복 실시하여 측정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전체 척도 .61, 탐구($r=.59$), 몰두($r=.52$)였다(all $ps<.0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상관된 2요인 구조를 독립된 표본에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표본 2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1과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χ^2/df , 적합도 지수(GFI), 비교 부합치(CFI: Comparative Fit Index) 및 추정오차의 평균 값(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사용했다. 그 결과, 상관된 2요인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은 $\chi^2(13)=32.202$; $\chi^2/df=2.48$; GFI=.950, CFI=.920,

RMSEA=.087(95% 신뢰구간 .049~.125) 모두 수용할 만 했다.

이와 함께, 1요인 모형과 독립된 2요인 모형을 원래 척도에서 가정하고 있는 상관된 2요인 모형과 비교하였다. 상관된 2요인 모형과 1요인 모형, 상관된 2요인 모형과 독립된 2요인 모형은 서로 위계관계에 있는 모형이므로 χ^2 차이검증을 통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1요인 모형은 상관된 2요인모형보다 적합도가 나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Delta\chi^2(1)=26.981$, $p<.001$). 탐구와 몰두요인이 독립적이라고 모형화한 독립 2요인 모형도 상관된 2요인 모형보다 적합도가 나빠다($\Delta\chi^2(1)=29.861$, $p<.001$). 이러한 결과는 K-CEI가 원척도에서와 유사하게 서로 관련되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됨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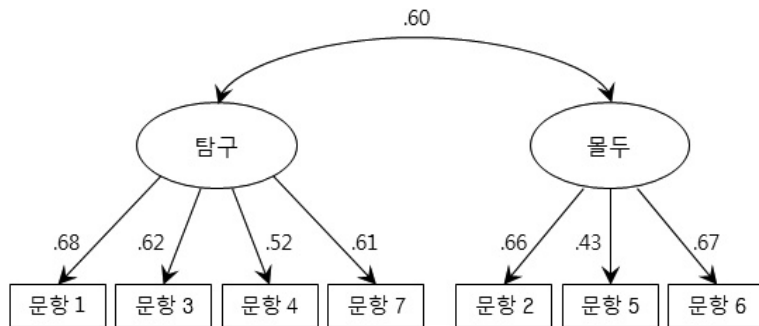


그림 1. 탐구와 몰두 하위요인이 상관된 척도의 2요인 상관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Delta\chi^2$	Δdf	GFI	CFI	RMSEA(90%CI)
상관된 2요인	32.202**	13			.951	.920	.087(.049~.125)
1요인	59.183***	14	26.981***	1	.915	.812	.128(.095~.163)
독립된 2요인	62.063***	14	29.861***	1	.922	.800	.132(.100~.166)

** $p<.01$, *** $p<.001$.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아래 표 5에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K-CEI의 전체 척도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 점수들과 예측했던 방향과 강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전체 척도의 점수는 경험 개방성(.47) 및 성실성(.49)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외향성(.24) 및 신경증(-.31)과는 중간 정도로 예측한 방향의 상관을 보였으며, 우호성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성실성과의 관계가 강한 정도로 나타난 점을 제외하면 예측과 유사하다.

탐구 척도 점수는 경험 개방성(.47) 및 성실성(.46)과 강한 정적 상관을, 외향성(.31) 및 신경증(-.32)과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우호성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양상은 ‘몰두’ 척도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고도 유지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 역시 예측과 잘 합치한다. 몰두 척도의 점수는 경험 개방성(.30) 및 성실성(.34)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이고, 신경증(-.17)과는 미약한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탐구 척도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성실성(.20)과만 미약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런 결과 역시 예측과 잘 들어맞는다.

표 5. K-CEI와 관련 구성개념 간의 상호 및 부분 상관

척도	사용된 표본	K-CEI 전체	K-CEI 탐구	몰두를 통제한 탐구의 부분상관	K-CEI 몰두	탐구를 통제한 몰두의 부분상관
<u>NEO-PI-R</u>						
경험 개방성(O)	2	.47***	.47***	.40***	.30***	.14
외향성(E)	2	.24**	.31***	.29***	.08	-.03
성실성(C)	2	.49***	.46***	.42***	.34***	.20**
신경증(N)	2	-.31***	-.32***	-.28***	-.17*	-.06
우호성(A)	2	.01	.00	-.01	.02	.04
<u>PANAS</u>						
긍정 정서	1	.58***	.53***	.40***	.46***	.29***
부정 정서	1	-.11	-.13**	-.12	-.05	.01
<u>BAS/BIS</u>						
BAS		.51***	.44***	.30***	.43***	.28***
BIS	1	-.10	-.09	-.05	-.08	-.05
<u>감각추구척도</u>						
경험추구	1	.27***	.31***	.28***	.13*	-.02
스릴추구	1	.30***	.34***	.31***	.16*	-.00
탈억제	1	.33***	.37***	.32***	.19**	.02
권태감	1	.08	.08	.07	.05	.02
권태감	1	-.10	-.07	-.02	-.11	-.09
<u>불안</u>	1	-.34***	-.29***	-.18**	-.29***	-.19**
<u>삶의 만족</u>	1	.31***	.29***	.21**	.23***	.11

* $p < .05$, ** $p < .01$, *** $p < .001$.

n1(표본1) = 236, n2(표본2) = 198

긍정 및 부정 정서 경험(PANAS)과의 관계는 예측한 바와 같이, K-CEI의 전체 척도와 탐구 및 몰두 척도의 점수는 긍정 정서 경험 경향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46 이상) 부정 정서 경험 경향성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 경험 점수와 탐구 척도의 점수가 미약하나마 유의한 부적 상관(-.13)을 보였으나, 몰두척도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예측과 잘 합치된다.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 체계 민감성(BAS/BIS)과의 관계에서 K-CEI 전체와 하위척도 점수는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 점수와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43이상) 행동억제체계의 민감성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몰두척도의 점수가 행동활성화체계 민감성 점수와 강한 상관을 보인 점을 제외하면, 예측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또한 K-CEI 전체척도(.27)와 탐구척도(.31) 점수는 감각추구성향 점수와 예측했던 방향으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몰두척도(.13) 점수도 감각추구와 약하나마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이는 탐구척도 점수의 영향을 배제하면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예측과 매우 유사하다.

불안 및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K-CEI 전체 척도와 탐구 및 몰두척도 점수는 특성 불안 점수와 중간 정도의 유의한 부적 상관(-.29 ~ -.34)을 보였다. 이에 반해,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 경험 점수와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정적 상관(.23 ~ .3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예측과 유사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 자체의 일반적인 특성과 호기심이 인간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춘 Kashdan 등(2004)의 ‘호기심과 탐구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척도의 심리측정적 속성들을 검토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어로 번안된 호기심 척도와 타당도 관련 척도를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개별 문항과 전체 및 하위척도의 응답에서, 중간점 이상의 호기심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 호기심 척도나 하위척도 점수에서 성이나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척도(Kashdan et al., 2004)와 유사한 2요인 구조와 요인부하 양상이 발견되었고, 설명력도 충분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도 원 척도에서 가정했던 상관된 2요인 모형의 적합성이 대안 모형에 비해 높았고, 전반적 부합도 지수도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전체 호기심척도와 하위척도는 만족스러운 내적 합치도와 시간적 안정성을 보여주었으며, 예측한 방향과 매우 유사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의 의미와 제한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해 보자. 먼저, 본 연구의 일차적 의미는 호기심 경험의 개인 성장 촉진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한국판 척도를 개발했다는 점이다. 척도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시하고 채점하기가 간편하며, 내적 합치도와 시간적 안정성이 높고 이론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호기심의 하위요소인 탐구와 몰두 개념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예측한 방향과 부합했다. 그러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나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것과 상치되는 결과도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먼저, 5요인 성격과의 관계에서 경험개방성과의 관계 못지않게 성실성과의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성실성은 Kashdan 등(2004)의 미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성실성은 호기심의 몰두(.20)보다는 탐구요인(.42)과 더 높게 관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성실성이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추구 및 자기조절과 관련된 긍정 정서-동기 체계로서의 호기심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험 개방성과 유사한 정도의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탐구요인을 측정하는 문항의 내용에 “1. 새로운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7. 어디를 가든지 새로운 것이나 경험을 찾는다.” 혹은 “3. 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등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적극성과 성실성의 의미가 많이 포함되었고 이런 내용은 5요인 성격의 성실성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호기심 측정이 5요인 성격의 성실성과 지나치게 높게 관련되지 않으려면 이런 적극성과 성실성의 함의를 지닌 용어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Kashdan 등(2004)은 탐구와 몰두척도가 삶의 만족과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여러 선행 연구들((Kashdan & Steger, 2007; Park & Peterson, 2006; Park, Peterson, & Seligman, 2004)에서 호기심이 인간 삶의 웰빙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 성장 촉진적인 호기심이 작동하면 일상생활에서의 만족 경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예측과 결과가 논리적으로 보다 합당해 보인다.

한국판 호기심 척도(K-CEI)는 한국의 연구와 실무에서 활용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남녀 대학생 집단에 국한되어 그 결과를 청소년과 일반 성인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Kashdan, Gallagher, Silvia 등(2009)은 척도를 개정하고, 하위요인의 이름을 ‘stretching’과 ‘embracing’으로 바꾸었다. 기존 척도와 개정판 척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어느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지? 등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10). 인간의 긍정적 성품. 서울: 학지사.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체계 및 행동 억제체계(BAS/BIS)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7.
- 김정택 (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동부 (2000). 직업선택도검사 실시요강.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박윤창, 이미경, 윤진 (1995). 자극추구동기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1), 53-64.
- 박정선 (2009). 흥미형 호기심과 박탈형 호기심에 따른 정서반응 비교: 실제 자기 평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19-31.

- 성영신, 김학진, 이현진, 박정선, 김희진, 김보경 (2008). 지적 호기심의 심리적 메커니즘: 호기심 충족 방식에 따른 차이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소비자·광고*, 9(2), 305-331.
- 성영신, 이현진, 박하연, 방지원 (2009). 호기심 충족 시간지연이 보상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 호기심 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0(4), 43-58.
- 이현진 (2009). 호기심 충족 시간지연에 따른 보상효과: 호기심정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 최영윤 (2009). 지식검색서비스 특성이 이용동기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적호기심의 조절역할을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ley, M. D. (1987). The factor structure of curiosity measures: Breadth and depth of interest curiosity styles.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39, 53-59.
- Berlyne, D. E. (1954). A theory of human curios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45, 180-191.
- Berlyne, D. E. (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 McGraw-Hill.
- Berlyne, D. E. (1971). *Aesthetics and psychobiology*.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 Beswick, D. G. (1971). Cognitive process theory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curiosity. In H. I. Day, D. E. Berlyne, & D. E. Hunt (Eds.), *Intrinsic motivation: A new direction in education* (pp. 156-170).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yman, R. (2005). Curiosity and sensation seeking: a conceptual and empirical exam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365-1379.
- Carver, C. S., & White, T. L. (1994). Behavioral inhibition, behavioral activation, and affective responses to impending reward and punishment: The BIS/B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319-333.
- Collins, R. P., Litman, J. A., & Spielberger, C. D. (2004). The measurement of perceptual curios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 1127-1141.
- Day, H. I. (1982). Curiosity and the interested explorer. *Performance and Instruction*, 21, 19-22.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 Digman, J. M. (1990). Personality structure: Emergence of the five-factor model.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417-440.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 Kashdan, T. B., & Roberts, J. E. (2004). Trait and state curiosity in the genesis of intimacy: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struc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792-816.
- Kashdan, T. B., & Silvia, P. J. (2009). Curiosity and interest: The benefits of thriving on novelty and challeng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367-374), 2nd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ashdan, T. B., & Steger, M. F. (2007). Curiosity and pathways to well-being and meaning in life: Traits, states, and everyday behaviors. *Motivation and Emotion*, 31, 159-173.
- Kashdan, T. B., Gallagher, M. W., Silvia, P. J., Winterstein, B. P., Breen, W.E., Terhar, D., & Steger, M.F. (2009). The Curiosity and

- Exploration Inventory-II: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psychometric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 987-998.
- Kashdan, T. B., Rose, P., & Fincham, F. D. (2004). Curiosity and exploration: Facilitating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opportun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 291-305.
- Leonard, N. H. & Harvey, M. (2007). The Trait of Curiosity as a Predictor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7, 7, 1545-1561.
- Lindgren, K. P., Mullins, P. M., Neighbors, C., Blayney, J. A. (2010). Curiosity killed the cocktail? Curiosity, sensation see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in college women. *Addictive Behaviors*, 35(5), 513-516.
- Litman, J. A., & Jimerson, T. L. (2004). The measurement of curiosity as a feeling of depr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2, 147-157.
- Litman, J. A., & Silvia, P. J. (2006). The latent structure of trait curiosity: Evidence for interest and deprivation curiosity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6, 318-328.
- Litman, J. A., & Spielberg, C. D. (2003). Measuring epistemic curiosity and its diversive and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0, 75-86.
- Litman, J. A., Crowson, H. M., & Kolinski, K. (2010). Validity of the interest- and deprivation-type epistemic curiosity distinction in non-stud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5), 531-536.
- Litman, J. A., Hutchins, T. L., & Russon, R. K. (2005). Epistemic curiosity, feeling-of-knowing, and exploratory behaviour. *Cognition and Emotion*, 19, 559-582.
- Loewenstein, G. (1994). The psychology of curiosity: A review and reinterpret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75-98.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7). Conceptions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R. Hogan, J. Johnson, and S. Briggs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847). San Diego, CA: Academic.
- Mussel, P. (2010). Epistemic curiosity and related constructs: Lacking evidence of discriminant valid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 506-510.
- Park, N.,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A closer look at hope and modes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p. 125-141.
- Peterson, C., Ruch, W., Beermann, U., Park, N., & Seligman, M. E. P. (2007).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 149-156.
- Reiss, S. (2000). *Who am I? The 16 basic desires that motivate our actions and define our personalities*. New York: Tarcher/Putnum.
- Renner, B. (2006). Curiosity about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ocial curiosity measure in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 305-316.
- Silvia, P. J., & Kashdan, T. B. (2009). Interesting things and curious people: Exploration and

- engagement as transient states and enduring strength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3, 785-797.
- Stemberg, R. J. (1994). Answering questions and questioning answers. *Phi Delta Kappa*, 76, 136-139.
- Tamdogon, O. G. (2006). Creativity in education: Cleanness in perception, vigorousness in curiosity. *Education for Information*, 24, 139-151.
- Zuckerman, M. (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원고접수일: 2013년 10월 24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7일

게재결정일: 2013년 11월 15일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

Mi-Young Sim Jin-Sup Eom Sunhee Lee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Curiosity and Exploration Inventory(K-CEI), originally developed by Kashdan, Rose & Fincham(2004). 434 college students(age range: 17~28) were asked to respond to the K-CEI and other questionnaires. Two dimension structure of exploration(appetitive strivings for novelty and challenge)and absorption(full engagement in specific activities) was found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a high internal consistency.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howed that correlated two factors structure is better than one factor and independent two factors structure. K-CEI also showed goo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eywords: curiosity, exploration, absorption